

## 민경구 교수의 출애굽, 구원 이야기

### 11강 율법에 담긴 은혜

#### 출애굽기 21-23장

출애굽기에는 십계명 이외에도 독특한 율법들이 확인된다. 십계명 직후에 21-23장을 사람들은 언약법전이라 부르는데, 출애굽기 24:7 때문이다.

이 법전을 살펴보는 것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는 시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종에 관한 법 - 이스라엘 법의 독특성

출애굽기 21:1은 언약법전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율법임을 선언한다. 특이한 점은 백성에 관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종에 관한 법'(출 21:2-11)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법은 출애굽기 21:20-21에서 다시 기록되었다.

출애굽기 21:20에는 아주 독특한 진술을 엿볼 수 있다. 성서보다 오래된 '함무라비 법전'에는 주인이 종을 죽였다고 해서 주인을 처벌하는 조항이 들어있지 않다.

왜냐하면 고대로부터 '종'은 주인의 재산이었기 때문이다. 주인이 종을 때리거나, 혹은 때림으로 인해 그의 생명이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은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실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하지만 출애굽기 21장은 그것과 전혀 다른 법률을 제시한다. 아무리 주인이라 하더라도, 몽둥이로 남종과 여종을 쳐서 죽이면, 주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아야 한다. 이 구절은 특별히 동의어를 반복해서 사용함으로써 처벌이 엄중해야 함을 강조한다. 종은 주인의 재산 이상의 가치이다. 심지어 '종'이라 할지라도 그의 생명이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언약법전에서 성서의 생명 존중 사상을 볼 수 있다.

#### 올챙이 적을 생각하라.

출애굽기 22:21에는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말라'고 명령한다. 이러한 진술은 여기에서만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3:9에서도 관찰된다.

이처럼 그들은 괴롭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서는 이스라엘이 과거 경험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급한다. 자신의 어두운 역사에 대해 숨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은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되는 근거로 사용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그네를 압제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애굽에서 나그네였기 때문이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는 속담이 있다. 형편이 조금 나아졌다고, 예전에 어려웠던 때를 생각 못 하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억압당했던 것을 명심해야 한다. 우리는 뒤에 나타나는 구절을 통해 그 이유를 알 수 있다.

## 하나님 이해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 이스라엘 하나님이 고대 근동의 하나님과 구별됨을 끊임없이 확인해 왔다. 출애굽기 22:22-23에서도 그러한 기록이 관찰된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기억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억압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았다(출 1:12).

출애굽기 22:22-23은 그러한 상황이 역전되었음을 보여준다. 출애굽기 22:22의 '해롭게 하다'는 출애굽기 1:12의 '학대하다'와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이다. 심지어 23절에는 이 단어가 2회 사용됨으로써 이스라엘이 과부와 고아를 학대하는 것이 도가 지나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제는 이스라엘이 억압하는 자가 되었다. 과부와 고아가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는가?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를 심각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을 대적하신 것처럼, 고아, 과부를 위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기독교인이란 그리스도를 믿으며,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기로 결심한 자들이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을 '선별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전체 말씀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아와 과부를 문자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사회적 모습으로 보자면, 상하 관계에서 부하직원이 될 수도 있으며, 직장의 피고용인이 될 수도 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 재판

출애굽기 23:1-2은 거짓된 풍설에 대해 언급하며, 이것은 '위증'과 평행하게 사용되었다.

거짓된 이라고 하면 '나는 예외'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잘못된', '근거없는' 혹은 '헛된'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헛된/ 허무한 소문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경고한다. 그들의 행위는 단순한 헛된 소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위증'하는 것이다. 이것을 단순한 거짓말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위증은 문자적으로 번역한다면, '폭력적인 증인'임을 의미한다. 즉, 그들의 증언은 다른 이들에게 폭력을 행함으로써 증언을 듣는 자로 하여금 사지로 내모는 것이다.

위증이라는 것 역시 법적 용어이다. 성서는 이러한 행위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신명기 17:2에 따르면 만약 그러한 것이 거짓이라면, 그를 처형하라고 선언한다. 이처럼 성서가 이야기하는 법은 대단히 엄격하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23:2는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라고 진술한다. 이것 역시 '폭력적 위증'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그것과 견줄 수 있는 고사성어가 지룩위마(指鹿爲馬)다. 법적 심리는 다수의 의견이 옳은 것이 아니라, 증거가 중요하기 때문이다(증거재판주의).

법적인 것을 다루기 때문에 우리와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될 수 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사회와 무관한가?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국가이다. 민주주의는 부득불 '다수결의 원칙'을 통해 결정을 한다. 반대로 소수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성서는 '다수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한다.

출애굽기 23:2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다수가 지지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악하다면, 우리는 그것을 따라갈 것인가?' 우리는 하루 동안에 수도 없이 이러한 질문과 대면한다: 신앙인으로서 삶과 현실적 문제. 하지만 때로는 다수가 좋다 하여도, 말씀과 상식에 어긋난다면 우리는 그것을 'no'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어지는 출애굽기 23:3에서 우리는 조금 낯선 구절을 보게 된다.

이 기록이 조금 불편한 이유는 '가난한 자의 송사'를 말하기 때문이다. 성서는 일반적으로 가난한 자에 특별한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문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우대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한다. 이것은 시편 72:13과 충돌되는 것처럼 보인다.

본문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출애굽기 23:3은 가난한 자를 돌봐주어야 한다는 명목으로 법정신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